

# 화순 폐광산 투어

군-광주 환경단체 등 60여명 산림복구 현장 견학

폐광산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 등이 화순 등지의 폐광산 투어를 한다.

화순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 호남 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화순군 동북면 철정리 동양탄광 산림복구 현장 등지에서 광산지역 환경 실태에 대한 정보 공유와 광해방지사업을 알리기 위해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군 공무원, 광해관리공단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가하는 폐광산 투어 행사가 열린다.

이번 투어는 현재 가동 중인 화순

군 한천면 오음리 호남광업 수질정화 시설을 비롯해 동양탄광 산림복구 현장, 나주시 덕을광산의 토양오염 복원사업 현장을 둘러보게 된다. 또 폐광구를 활용한 것같을 속성시키는 저장 창고도 견학할 예정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광산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은 인근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환경단체와 관련학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물에 대면 충전되는 친환경 배터리 나온다

### 대만 국립대학 연구팀 발명

대만에서 세계 최초로 10초만 물에 대면 충전이 가능한 ‘업록소 배터리’가 발명됐다.

대만 일간 빙과일보는 국립 후웨이(虎尾)과학기술대학 광학전기재료 대학원 라오충빈(廖重賓) 교수팀이 업록소 배터리 발명에 성공해 낮은 전류의 속제한을 해결하면 빠르면 6개 월 이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망간 혹은 알카라인 전자는 환경오염의 문제로 모두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가격 또한 평균 10대만달러(약 400원)가 넘지만 이를 발명한 업록소 배터리는 물만 있으면 충전이 되고 밝혔다.

/연합뉴스

## 북극해 얼음 6년사 최고 49cm 얇아져

지난 겨울 북극 해빙의 두께가 급속히 얇아졌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49cm까지 줄어든 것으로 위성 관측 결과 밝혀졌다고 BBC 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연구진은 지구물리학 리서치 레터스 최신 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북극해의 얼음 두께는 이전 5년 겨울 동안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왔었다면서 지난 겨울에 갑자기 나타난 이런 현상은 북극 해빙의 전체적인 부피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확실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북극해빙은 지난 해 9월 413만km<sup>2</sup>로 이전 최소기록인 지난 2005년의 532

만km<sup>2</sup>를 경신하며 사상 최소 면적으로 기록됐으며 연구팀의 관찰에 따르면 지난 해 얼을 두께는 2002~2008년 겨울철 평균치보다 평균 26cm 얇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북극해 서부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얼을 두께가 최고 49cm나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북극해를 덮고 있는 얼음이 이처럼 기록적인 수준으로 얇아진 것은 북극 지역이 이미 ‘티핑 포인트(균형이 무너지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그 원인을 단정하기에는 아직 일부 불확실한 점들이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습지는 ‘천연 인프라’… 생태가치 높였다

### ■ 람사르 총회 폐막 … 뭘 남겼나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가 4일 폐막했다. 지난달 28일부터 8일간 경남 창원, 창녕과 전남 순천 등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람사르 총회는 습지나 기후변화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환경 이슈를 담아내고 알려낸으로써 환경 관련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창원선언문을 이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후속조치를 점검하도록 해 실행의지를 높였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 ‘논, 생물 다양성의 보고’ 습지로 채택

### 순천·창원 선언문 실천할 네트워크 구축

조치가 강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논을 습지로 인식하는 논의 기능에 대한 평가 및 홍보 등을 증진한다는 내용의 ‘논 습지 다양성 증진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국내서 열린 첫 환경 국제행사… 시행착오도 많아= 세계적 규모의 국제 환경 행사를 광역시가 아닌 시 단위에서 진행하다보니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환경부와 경남도, 창원시, 창녕군 등 관계 기관들이 하녀의 사무국을 미리 구성해 대응하지 않고 제각각 움직이다 보니 초반에 혼란도 많았다. 특히 습지 공식 투어 행사에 대표 등이 우포늪과 순천만 등을 순회했지만 2~3시간 코스로 짧은 시간 내에 돌아봐야 하는 일정 때문에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또 행사가 열리는 곳곳에 일반 탐방객까지 일시에 수만명이 몰리는 바람에 교통체증은 물론 수많은 철새들이 있음에도 소음이 제대로 통제가 안돼 지역을 밟기도 했다.

순천시 이기정 순천만보존 계장은 “국민들이 습지의 소중함은 물론 갯벌이 단순 즐기는 장소가 아닌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것을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제10차 람사르 총회’가 4일 폐막한 가운데 시민들이 생태 탐방지로 지정된 우리나라 대표 연안습지인 순천만의 가을 풍경을 촬영하고 있다.

재인식하게 됐다는 게 큰 성과”라며 “하지만 방문지 일정을 너무 짧게 잡는 바람에 대표단들이 서운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안매립 종단과 한반도 대운하 계획 등 향후 과제 남아 = 환경부는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국내 람사르 등록습지를 현재 11곳에서 2012년까지 16곳으로, 습지보호지역을 30곳으로 늘리고 연안습지의 경우 2017년까지 전체 연안습지의 2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17년까지 훼손된 갯벌 면적의 10%인 81㎢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주요한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언한 때에 맞춰 람사르총회가 개막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총회 참여열기가 높았고 습지·환경에 대한 인식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연안매립 종단과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확실한 포기 선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20여년간 서울시 면적의 3.2배인 19억 1795만㎡를 매입하거나 매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연안습지를 파괴하고 있다며 새만금 등 ‘위기에 처한 한국 습지 20곳’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세계 습지 전문가 신안 장도 온다

### 오늘 산지습지 탐방

‘제10차 람사르 총회’에 참석한 외국인과 습지 전문가가 신안군 장도 습지(사진)를 방문한다.

신안군은 4일 “총회 참가 가운데 외국인 13명과 습지 전문가 17명 등이 신안 방문을 희망해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장도 습지와 증

도 갯벌에서 체험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흑산 장도의 습지는 국내 도서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산지습지로 국제습지보호협약인 람사르협약(국제습지보호협약 1천 423번지)의 람사르 산지습지로 지난 2005년 3월 지정됐다. 이탄층이 잘 발달해 수자원 저저장과 수질 정화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이 습지는 멸종 위기종인 매와 수달, 보호 야생



종인 솔개와 조롱이 등 많은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는 생물종 다양성과 생태계의 보고다.

한편, 신안군은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

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장도 습지와 천혜의 관광지 갯벌, 천일염을 세계에 알렸다.

/신안=조완님기자 wncho@kwangju.co.kr

**뜻깊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동 11월 14(금) 오후**

**15~16(토) 조향조  
17~18(일) 승대관  
20~21(금) 전진의  
25(화) 박현빈  
27~28(수) 김수희  
4~5(금) 설운도**

**11월 14(금)  
장운정  
광주첨단·폭스존열**

**한국 나이트**